

2022년 1월 필리핀 선교 기도 편지

GMS 명예 선교사 박광옥, 우예덕

2022. 1월 24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마6:33-34)

성도들은 누구나 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응답의 비결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소원과 내 형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다. 무엇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 우선 순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보면 성경의 교훈보다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마6:33절 말씀처럼 먼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슨 제목, 무슨 소원으로 기도하든지 그 목적이 마 6:33절이어야 한다. 그리하면 내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우리가 마 6:33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보시다

1. 감사한 일.

헬렌켈러는 내게 사흘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무엇보다도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들에 핀 꽃들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영롱하게 빛나는 밤 하늘의 별들과 셋째 날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내 생애 행복한 날은 6일 밖에 없었다고 말한 반면 헬렌켈러는 내 생애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022년의 새해를 주셔서 새롭게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해를 달려가게 하시고 벌써 1월을 달려왔다. 우리가 헬렌켈러의 정신에서 2022년 새해를 힘차게 달려간다면 금년 말에는 더 좋은 결과들,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 박광옥 선교사의 비 대면 On line 강의.

- 1] 지난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한달 동안은 연말, 크리스마스, 신년. 구정으로 휴강을 했습니다. 2월 7일부터 다시 새 학기를 개강할 계획입니다
- 2] 그러나 그 동안에도 목회학 박사과정 준비로 여러 차례 줌 저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3. 필리핀 MRI 목회자 목회학 박사 과정

- 1] ATEA(아시아 교육 선교사 협의회)는 2004년 필리핀에서 선교현장의 현지목회자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수 선교사 10여명이 함께 모여서 발기한 단체이다. 저는 설립 멤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봉사해 오고 있다 (주 멤버는, 전 총신 김의원총장, GMS사무총장 김활영 선교사,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봉사하고 있다)
- 2] 그러나 지난 16-7년 동안은 주로 각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교사들이 먼저 학위를 가져야 현지인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이 일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들과 연계를 하여 몇몇 선교사들이 Ph-D를 받았다

3] 2021년부터는 AETA로 단체이름을 바꾸고 좀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다

1) AETA의 사역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었다

(1) Track A.= 문교부인가 정식 박사학위 과정 (Ph-D)

(2) Track B = 교단인준 현지인 목회 M-Div 및 목회학박사 과정

참고로 D-Min(목회학 박사) 이나 M-Div(목회자 과정)은 문교부의 인정이 없이도 교단이나 신학교 협의 기관에서 학력을 인준해 줄 수 있다 = 여러 교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2) 저는 지금까지 줄곧 Track B.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 이제는 서서히 길이 보이는 것 같다

4] 2021년 10월 AETA의 임원들이 모여서, 필리핀 MRI 목회자들에게 목회학 박사 학위를 인준해 주기로 협의를 하였다.

협의한 내용은= 박광옥 선교사는 한국의 서울 혜성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해온 많은 경험자이다. 그리고 미국 RTS(리폼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원로 목사로 은퇴한 후에 필리핀에서 18년 이상 사역하면서, 필리핀 현지 필리핀장로교 신학교에서 8년 교수사역과 MRI 목회연구소 사역을 통하여 현지인 목회자들의 훈련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AETA가 인준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박광옥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AETA가 학위를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1) MRI (Ministry Re-engineering Institute/ 목회 활성화 연구소)는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 이름이다 =현재 전체 회원은 약 50여명이 넘는다

2) 훈련받은 목사 중에서 목회학 박사(D-Min) 14명과 목회자 M Div과정 11명을 선정하였다

3) 목회학박사 자격 = (1) 목회경력 15년 이상. (2) MRI 목회훈련 12년 이상. (3) 연령 45세 이상. (4) 지금까지 학사(BA)나 목회학 석사(M-Div.)와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목사 (5) 지금까지 성실하게 목회를 해 온 목사의 자질을 인정받는 목사

4) 목회자 과정 자격 = (1) 목회경력 10년 이상, (2) MRI 목회훈련 8년 이상. (3) 연령 40세 이상. (4) BA나 목회학 석사와 동등 된 학력을 가진 목사. (5) 성실한 목회사역을 해 오는 목사

5] 목회학 박사과정의 소 논문 작성 (Article/ Proposal 형식의 소 논문)

1) AETA가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을 목사들에게 짧은 글이지만(15페이지 정도) 페이퍼를 요청하므로 지금 논문 작성을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 지난 1월 4일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논문 작성법을 가르쳤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박사학위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MRI를 통하여 배운 것과 자신의 목회경험을 토대로 짧은 글이지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사실 필리핀 목사들은 지금까지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공식적인 형태(Form)에 맞추어서 글을 써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Form(형식)에 맞추어 논문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일일이 논문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 논문은 설교작성과 달리 형식에 맞추어서 써야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 그래서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Chapter 하나씩 하나씩 작성하면 저에게 제출하여 우선 제가 살펴보고 다음 과정을 써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글을 쓰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4명의 글을 제가 혼자서 지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5) 글을 다 쓰면 AETA의 교수들의 최종 논문심사를 받고 그후에 합격하면 졸업을 하게 된다

6) 지금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논문 작성을 끝내고 4월 중에 졸업식(학위식)을 가질 예정이다 =/ 그러나 졸업식 날자는 [Covid-19] 때문에 많이 유동적이다.=/ 필리핀 정부가 관광객들의 왕래를 허락할 때에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름이나 가을 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6] 전 세계에는 저의 필리핀 사역(MRI)과 같이 문교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AETA에서는 첫 시범으로 MRI가 학위과정을 끝마치게 되면 이것을 모델삼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필리핀처럼 학위식을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7] B Track에 대한 연구.

AETA 커리큘럼 위원회에서든 제가 지난 18년 동안 사역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미 보고한 바가 있다. 그리하여 지금 AETA의 B Track 위원회에서 커리큘럼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학위 문제가 진행되리라고 믿는다

8] 목회 학 박사과정/ 목회자 과정 대상자 명단

=/ D-Min

1. Orlando Tabotabo / 2. Eddie Nagales / 3. Nelson Carillo / 4. Bernardo Santos
5. Arman Mendoza / 6. Arturo Panopio / 7. Crisostomo Sibulo / 8. Daniel Quintinta
9. Evelyn Nagales / 10. Felix Frias Jr / 11. Arnel Salcedo / 12. Dionnie Seniorin
13. Leonora Odias Sumalinog / 14. Nelson Leona

=/ [2] M-div

1. Dong Bajala / 2. Simon Gregorio / 3. Regan Bening / 4. Angelito Sumalinog /
5. Roger Valdez / 6. Jhun Aquino / 7. Ray Clave Hicks / 8. Teddy Roxas / 9. Marife Leona.
10. Edwin Ofalla / 11. David Capungcol .

9] 논문 제목들

- 1) 미션스쿨이 필리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Nagales)
- 2) 여성사역이 필리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Evelyn Edd)
- 3) 가정교회 사역이 필리핀교회 부흥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Nelson Carillo).
- 4) 교회행정과 관리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Orlando Tabotabo)
- 5) 해외근로자들의 제자훈련을 위한 교재준비에 대한 연구 (Arthur Panopio)
- 6) 필리핀내의 소수민족의 선교에 대한 전략연구 (Nelson Leona)
- 7) 찬양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Dionnie Seniorin)
- 8) 청년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rnel Salcedo)
- 9) 교회의 연합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Daniel Quintinta)
- 10) 제자훈련이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Jhun Frias)
- 11) 교회개혁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Bernardo Santos) A study on the
- 12) 선교지의 신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Crisostomo Sibulo)
- 13) 선교지의 Business Mission (사업 선교)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Aeman Mendoza)
- 14) 필리핀의 영유아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연구 (Leonora Odias Sumalinog)

10] 앞으로 준비할 일

- 1) 졸업식을 하려면= 졸업식 식장 마련. 2) 24명의 졸업식 가운과 후드와 사각모. 3) 졸업 논문집 발행.
- 4) 손님 접대 (졸업식 때에는 AETA 대표단과 임원들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음)

11] 국제 기도회 (2022년 1월 20일) = 필리핀에서는 예배사회= 박광옥 선교사. 대표기도= Orlando Tabotabo. / 설교= Nelson Carillo 목사가 담당했다

=/ 필리핀 기도요청 =Edd Nagales 목사 = 1) 코로나 때 이지만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 지지 않도록, 2) 속히 대면 예배와 모든 경제활동이 회복되도록. 3) 2022년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13] 기도제목 요청

1] 열심히 논문을 작성하여 탈락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총 14명)

2] [Covid-19]가 빨리 종식되어 새로운 선교의 활기찬 시대가 오도록= 근래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여 하루에 25,000명 썩이나 발생하고 있다 = 빨리 진정되고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3] 졸업식 위하여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원만하게 재정이 충당되도록

4] 박광옥 선교사도 빨리 선교현장으로 복귀하여 선교사역과 졸업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